

전문가 칼럼

스마트한 착한 기업



허종호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착한경영센터장)

시장의 패러다임이 제품의 질(質)과 이미지를 중시하던 '마켓 1.0'과 '마켓 2.0'에서 기업의 선의(善意)를 중시하는 '마켓 3.0' 시대로 접어들면서 착한 기업의 전성시대(全盛時代)가 열리고 있다. 과거의 소비자들이 단순히 제품을 구입하는데 그쳤다면 지금의 소비자들은 제품구입을 넘어서 그 기업의 사회적 가치까지 소비할 만큼 소비자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Eccles, Ioannou, and Serafeim (2012)가 지난 18년간 미국 180개 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착한 기업일수록 투자수익률이 높고, 투자자의 주식보유 기간도 장기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단순히 착한 기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사회공헌을 하나의 전략으로 활용해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스마트한 착한 기업들이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니레버는 인도 농촌지역에서 손씻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Help a Child Reach' 캠페인을 통해 위생습관을 개선시켜 영유아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비누 사용률 증가로 매출이 상승하였다. 사회공헌활동을 매출 기반 강화 및 신시장 개척에 활용한 것이다. 코카콜라는 3R(Reduce, Recycle, Replenish)로 대표되는 녹색경영의 실천과 상수원 보호, 물 자원의 중요성 홍보 등 물과 관련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물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물 사용의 효율성을 20% 가까이 개선시켰다. 사회공헌활동을 기업의 비용절감에 활용한 것이다. 그라민폰은 방글라데시 동북부 시골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포메이션 보트(농촌지역에 정보통신기기를 싣고 찾아가 사용 및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를 운영하여 도농 간의 정보격차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잠재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회공헌활동을 잠재시장 확보와 사업 인프라 강화 등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경주 최부잣집이 3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대원칙을 지켜오며,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이었다. 사회공헌활동을 부담이나 비용이 아닌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하여 국민과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스마트한 착한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많아지길 기대해본다.



최근 국내외 동향

:: 국내 윤리경영 동향

경기침체 속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현황

기업들이 대내외 경기침체로 수익성 악화를 겪으면서 2013년 사회공헌 지출 규모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3년 한 해 동안 사회공헌 활동에 지출한 규모를 조사한 결과 2012년에 비해 1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출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전이익에서 차지하는 사회공헌 지출 비율은 3.76%로 2012년(3.37%)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출처: <http://news.kmb.co.kr/article/view.asp?arid=0008849625&code=61141111&sid1=eco>

KOTRA, 외국인투자기업 CSR 시상식 개최

지난 10월 29일, '2014 외국인투자주간'(산업부 주관, KOTRA 주최)의 개막식에 이어 '외국인투자기업 CSR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외국인투자주주간은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전 세계에서 투자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과 주요 산업의 현황을 소개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행사로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다. 총 14개 기업이 응모하여 일련의 심사 후 최종적으로 4개 기업이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 출처: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03011181440753>

사회적 문제 해결 제품을 출시하는 착한 기업들

최근 국내 기업들은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제품을 출시하여 사회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기업은 기술과 제품 개발은 물론 점자 매뉴얼, 고객센터 전용 상담창구 운영까지 전사적으로 접근하여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스마트폰과 소형TV를 출시했다. B기업은 무선통신 방식으로 기존의 종이 라벨을 대신하는 전자가격 표시기를 출시하여 종이 사용량을 줄이는 친환경 제품 사용을 확산 시켰다. C기업은 근래 층간소음을 줄이는 바닥재와 환경호르몬 방출을 최소화하는 벽지를 출시하기도 했다.

-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657520.html

:: 해외 윤리경영 동향

세계적 추세가 된 사회책임경영 실태 공개 의무화

전 세계 증시, 기관투자가, 금융감독기구 등이 사회책임경영이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기업에 비재무적 성과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한 사회책임경영 전문가의 “1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최상위 기업 소수만 사회책임경영 보고서를 냈지만 지난해 연구결과 전 세계 250위권 대기업의 93%, 41개국 100위권 대기업의 70% 이상이 관련 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실제 올 4월에 유럽연합(EU)은 종업원 수 500명 이상 기업에 사회책임경영 정보 공시를 의무화했으며, 홍콩 증시는 ‘항생 지속가능 지수’를 지난해 도입했다.

-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1174.html

지속가능성 노력에 회의적인 기업 여전히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과 에넬재단이 함께 발표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21세기 공유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6%가 지속가능경영과 장기적 재무성과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응답기업의 11%는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재무성과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에 비해 5% 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노력에 회의적인 기업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 출처: http://www.sustainablebrands.com/news_and_views/behavior_change/mike_hower/report_more_companies_committing_sustainability_some_remain

일본의 리베이트 근절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일본계 다국적 제약사인 미쓰비시다나베코리아의 카와이 타로 이사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제약기업에서 기업의 사회적 사명과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업계 내의 자율규범을 통해 윤리경영이 자리 잡았으며, 그 일환으로 CP(Compliance Program)를 비롯해 제약기업윤리요령, 제약협기업행동헌장 등을 발표 및 적용하고 있다. 또한 특정기업에서 연구조성의 명목으로 기부를 받는 연구자의 경우, 제약사가 지불한 사례금 및 기부금 등을 공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 출처: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5325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윤리경영 체계 가이드스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추진하는데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고 윤리경영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가이드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 윤리경영 체계 가이드스에서는 그 열 번째 시간으로 '임직원 사회공헌 · 환경경영 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의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국제 사회의 요구와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추어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특

히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와 같은 전문성, 재능을 살린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효과를 가진다.

- 다양화되는 기업 사회공헌 활동

기업들은 공공의 이익과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자발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유형으로는 기부, 봉사활동,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기부는 현금 기부, 현물 기부, 재능 기부, 시설 개방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또한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기업에서는 사내 봉사조직, 우수봉사자 표창제도, 봉사활동 휴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3면에서 계속됩니다.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

이번 호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에서는 건설업계의 비윤리적 행위와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자정노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주최한 '2015년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에서는 국내 건설수주가 올해 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타면서 100조원대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었다. 국내 건설수주가 상향세를 타고 있는 만큼 건설업계의 윤리경영 또한 회복되기를 기대해본다.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사의 비윤리경영

올해는 유독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중 일부는 건설사의 부실시공이 원인이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생명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건설업계는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사 례 '안전불감증' 터널공사 부실시공 무더기 적발

2010년 이후 한국도로공사 발주로 착공한 121개 터널을 전수 조사한 결과, 64%에 해당하는 78개 터널에서 기초자재인 락볼트가 당초 설계보다 적게 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락볼트는 길이 3~5m에 두께 2~3cm의 철근으로, 터널 공사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자재이다. 허위 락볼트 설계로 과다 청구된 공사비는 187억원에 달했다.

건전한 하도급 생태계를 향해

건설업계에는 하도급 대금을 연체, 미지급하거나 현금 대신 어음을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대기업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중소기업이 가져가야 할 정당한 이윤을 대기업이 가로채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공사와 건설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사 례 '건설업의 빈번한 부조리, '뇌물''

건설 부조리사건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입찰·계약 단계에서 건설기업이 발주기관에 주는 뇌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 부조리사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건이 뇌물 사건(43.0%)이었다. 이어 건설명의 대여(11.2%)와 업무과실·사고(각 7.5%), 담합·하도급(각 7.0%), 하자보수·손해배상(각 2.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기업윤리를 건설하기 위한 건설사 자정노력

빈번 건설업계는 현 상황을 위기로 판단하고, 자정노력을 통한 이미지 쇄신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윤리경영 실천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사 례 건설업계 이미지 쇄신을 위한 노력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침체 및 주택시장 불황에도 사회공헌 관련 지출 금액을 꾸준히 늘리고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주거시설 정비 등 재능기부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건설업계 및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지난해 772억8000만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실천했다. 이는 전년도 722억5000만원보다 50억3000만원(7.0%) 증가한 규모다.

또한,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도입, 하도급 대금의 현금성 결제, 납품단가 인상 및 자금지원,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활동을 시행하면서 원·하도급 업체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결 어

건설업계의 모든 비윤리적 경영 행위는 결국에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건설산업에서도 윤리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하여 기업 내·외부적인 자정노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에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하여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면에서 이어집니다.

사회공헌활동 추진 사내체제

구분	사회공헌 활동 추진제도
지역사회활동 추진운동	· 지역 소규모 식당이용 캠페인, 사업장 소재 지역 취약계층 지원 · 환경보호, 1사 1촌 농어촌 자매마을, 명절 직거래 장터 개설
내부모니터링 시스템	· 자원봉사활동과 임직원 인식조사, 사회공헌 규정 제작 · 자체 사회공헌프로그램 평가지표 등
전담자의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	· 사회공헌 전략 워크숍, 국내외 컨퍼런스 참가
사회공헌 추진관련 사내위원회 등 설치	· 기부위원회, 공익사업 운영협의회, 봉사단 운영위원회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사회공헌추진위원회, 사회공헌 평가위원회
기 타	· 글로벌 해외봉사활동, 장기휴가 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백서 발간 · 사회공헌포털사이트 운영, 자원봉사 교육학점제도, 프로보노 도입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하는 녹색경영

녹색경영이란 환경 친화적인 경영을 일컫는 말로, 기업의 비전부터 제품의 기획·설계·공정과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영 프로세스에 환경 친화적인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들은 사무실 내 자원 절약, 친환경 원자재·포장지 사용, 친환경 제품 개발, 친환경 인식 확산 캠페인 등의 방법으로 녹색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은 국제 온실가스 규제에 인해 당면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비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녹색경영은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환경 친화적 개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주기도 하며, 소비자들이 간접적으로나마 환경보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윤리경영 스터디

이번 호 윤리경영 스터디에서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 '국내기업의 해외 준법리스크 대응과 과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국내기업의 해외 준법리스크 대응과 과제

대한상공회의소는 2014년 10월 '국내기업의 해외 준법리스크 대응과 과제'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세계의 준법경영 동향과 이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보다 나은 준법경영을 위한 국내기업의 대응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준법경영 동향 : 글로벌 준법감시 정책의 강화

전 세계적으로 반부패·반독점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반부패·반독점에 대한 법 제정 및 집행이 증가하면서 선진국이 보호무역 수단으로 반부패, 반독점 정책을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는 미국, EU,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반부패·반독점 제재 입법 및 집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기업들의 대응과제

기업은 글로벌 준법리스크 확대에 따라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준법경영시스템 구축은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동시에 사후적으로는 회사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기업윤리 브리프스
Monthly Business Ethics Briefs



행사가
브리핑

한·영 반부패 세미나



'윤리경영의 재발견: 정책에서 기업문화까지'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27일 진행된 '한·영 반부패 세미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영국표준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영국 대사관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후원했으며, 약 70여명의 기업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미국 연방법원의 기업양형지침

미국의 경우 기업범죄 적발 시, 준법경영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형량을 90%까지 감형해 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400%까지 가중형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종업원 행동강령, 준법담당 임원, 기업윤리 관련 교육, 정기적 준법감사 등을 실시하는 회사는 형량을 가법게 받을 수 있다.

- 사내 준법경영프로그램의 정비 및 운영

많은 기업들이 오래 전 준법경영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세계 동향이나 현실에 맞게 개선하지 않은 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준법경영이 기업경영 전반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보완과 함께 동기부여, 성과 평가 및 인사고과 반영 등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기업 내 소통문화 확산

기업 준법문화 구축을 위해서는 내부자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제공인부정조사자협회(ACFE)가 2012년 세계 기업과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비윤리 행위의 최초 적발경로를 조사한 결과, 내부 제보를 통해 적발한 비율이 43.3%로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내부고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1)고발자의 비밀 보장, (2)명확한 보고체계, (3)충분한 보상, (4)보복조치 방지 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결 어

준법경영 위반은 막대한 벌금, 기업이미지 추락, 매출 감소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기업들은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내 준법경영프로그램의 정비 및 운영, 기업 내 소통문화 확산 등을 통해 해외 진출 시 준법리스크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며, 각 국가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준법프로그램을 개발해야 국제적인 준법리스크의 추세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임흥재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이 글로벌 반부패 동향과 UK 뇌물법에 대해 소개했다.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는 기업의 반부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및 도입하고 있다고 전하며, OECD 뇌물 방지 협약, 유엔반부패협약, UK 뇌물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윤리경영의 도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업의 우수 사례와 함께 반부패와 조직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반부패와 조직문화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한 고려대학교의 문형구 교수는 "기업의 시스템이 부패했다면 어떤 노력에도 세계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개인에 대한 통제보다도 조직 자체의 부패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패한 조직 문화 지양을 위해서는 CEO나 리더가 자신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의 도덕성까지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질의 응답 세션에서는 상거래 시 상대방의 윤리 규정을 요구하는 세계적 추세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기업들이 반부패 관련 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재차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리경영 One Point Lesson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윤리경영 One Point Lesson'을 통해 윤리경영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Q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에 있어서 '프로보노'라는 말을 들어봤는데, 프로보노가 무슨 뜻인가요?

A '프로보노(Pro bono)'는 라틴어에서 '공공선을 위하여'라는 의미를 가지는 '프로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래 변호사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무료 변론이나 자문활동을 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이나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자발적이고 대가 없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 또한 프로보노라고 통칭합니다. 현재 경영, IT, 회계, 인사노무 등 특정 기술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사회적·공적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환원하는 프로보노를 널리 펼치고 있습니다.

Q '메세나'를 통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메세나는 어떤 활동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A '메세나(Mecenat)'는 문화예술가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은 로마제국의 정치가 마에케나스(Maecenas)에서 유래한 말로, 각국의 기업인들이 메세나협회를 설립하면서 현재는 기업인들의 각종 지원 및 후원 활동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메세나는 예술, 문화, 과학, 스포츠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익사업 등 기업의 모든 지원 활동을 포괄합니다. 사회적 환원이라는 기업 윤리 실천 외에도 기업의 문화적 이미지 제고로 전략적 홍보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메세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Q 녹색기후기금이 인천에 사무국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유치되었다고 하는데, 녹색기후기금이 무엇인가요?

A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은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 기금을 모금하여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UN 산하 기후변화 기금입니다. 현재 국제 사회로부터 기금을 모집 중인 GCF는 내년부터 개발도상국 청정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GCF는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자원 조달과 사업 성공 가능성, 투자 유치 측면에서 높은 성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환경경영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GCF에 참여·투자하여 친환경 개발 사업 지원에 동참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12월 국내외 행사를 소개합니다!

2014 제2차 기업 사회공헌 아카데미

'융합과 협업'을 주제로 사회공헌 트렌드 분석에서부터 실제 기업 사례를 바탕으로 한 사업 아이템 발굴·기획·실행 등을 소개할 예정

- 주최: 전국경제인연합회
- 일시: 2014년 12월 4일(목)
- 장소: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3층)

CSV 2014 컨퍼런스

CSV(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ed Value)의 현재를 진단 및 한국형 CSV의 미래를 위한 의제들을 논의하고, 해외기업들의 강연을 진행할 예정

- 주최: CSR 서울 이니셔티브
- 일시: 2014년 12월 1일(월)~2일(화)
- 장소: 서울 팰리스 호텔

Caring for Climate Business Forum

투명성이 공급사슬, 에너지 및 기후, 공동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투명한 환경에서는 경영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주최: UN Global Compact
- 일시: 2014년 12월 8일(월)~9일(화)
- 장소: Lima, Peru

Renewable Energy Markets Conference

전 세계의 참가자들이 모여 클린 에너지 시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할 예정

- 주최: Center for Resource Solutions, U.S. EPA
- 일시: 2014년 12월 2일(화)~4일(목)
- 장소: Hyatt Regency, Sacramento, CA

윤리경영 퀴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사의 무료 변론이나 자문활동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뜻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 1) 자원봉사활동
- 2) 사회적 책임투자
- 3) 무보수 변론
- 4) 프로보노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호 정답: 2번. KEX

● 정답 제출처(25일 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장준용(gukmin@korea.kr)

※ 정답과 함께 성함, 연락처, 주소(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는 곳)를 적어 2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 지난 호 퀴즈 정답자는 백승은님, 이민환님, 정해진님, 김성민님, 정선미님입니다.

※ 보내주신 주소로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Yes 준비! Ok 윤리!

오늘도 달린다(?)



동팔아... 그래... 7시... 오케이!

이번 주는 아주 찌하게 달려주는구나~ 오늘은 대학동창모임으로 고고씹~

다음 날

에고 에고

어제 2시까지 달렸더니...

오늘은... 입사동기를 모임... 고고씹...

그 다음 날

헉헉 어젠 4시까지 달리고...

준법이나? 오늘 초등학교 동창모임 알지?

그 다음 날 나대리님 팀장님이 부르세요...

나대리!

나대리~ 계속 달리기 힘들지? 집에가서 쉬게.. 영원히...

하하 앞으로 술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진짜 달리기를 하겠습니다!

나대리님~ 바른 송년회 최신 트렌드로 고고씹 어떠세요?

[직장인] 올해 했으면 하는 기업 송년회 모임

[출처:잡코리아/단위 %]

공연관람 등 문화 송년회	50.9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상식 송년회	40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 송년회	30.8
무언가 함께 배워보는 배움 송년회	19.2
직원들의 끼를 발산하는 장기자랑 송년회	11.7
기타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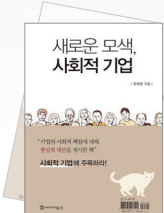
연말연시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해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모임 문화로 바꾸어 갑시다. 자료제공 : 교보생명 (그림 안중만)

새로운책 소개



뷰티풀 비즈니스

저 자: 주디 워스
출 판: 마일스톤
출판일: 2014. 3. 25
정 가: 18,000원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

저 자: 최태원
출 판: 이야기가 있는 집
출판일: 2014. 10. 13
정 가: 10,000원

